

주심판사	재판장

법원용	67
-----	----

채무자 주식회사 대한상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강신하

우 154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9호 전화 031-506-3322/팩스031-506-3320

문서번호 : 대한상인 파산 제2024-8호

발송일자 : 2024. 11. 7.

받 음 : 수원회생법원 제1파산부

주심판사 : 정수미 판사님

제 목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1. 귀원 2024하합328호 파산선고 사건입니다.

2. 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최병선이 채무자 회사 전무로 근무했던 양동군을 대표로 내세워 신설법인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며 채무자 회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인 www.생큐마트.com 을 그대로 운영하며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로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수익을 위 회사로 빼돌려 사기파산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최병선은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는 채무자 회사에 전

양동군을 대표로 내세워 신설법인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를 설립한 후 위 67사를 실제 운영하며 채무자 회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인 www.생큐마트.com 을 그대로 운영하며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로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수익을 위 회사로 빼돌려 사기파산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최병선은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는 채무자 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양동군이 설립한 회사로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며, 채무자 회사가 파산을 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포기한 온라인 쇼핑몰인 www.생큐마트.com 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큐소프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동군이 2024. 3.경 화장품, 건강식품, 패션잡화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최병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군은 채무자 회사의 주주도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주식회사 생큐소프트로 무상으로 양도한 증거 등이 없어 주식회사 생큐소프트 설립이나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대한상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강신하